

전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성과

79개사 5년간 연평균 매출 8.63%·수출 6.14% 증가 경제 파급효과 2616억원... 기술력 탁월한 중기도 지원

전북도가 추진한 '선도기업 육성사업' 이 성과를 내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의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매출과 수출액, 고용률 등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79개 선도기업의 2013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은 연평균 8.63%, 수출은 6.14% 증가했다. 고용은 7.81%, 임금은 8.19%씩 늘었고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7.07% 증가했다.

지난 5년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616억원으로, 투입된 예산 245억원의 10.7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현대중공업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악조건 속에서 거둔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제조업 성장을 견인할 허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도가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기술력이 탁월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지정해 5년간 기술개발과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앞으로도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도내 제조업의 성장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재활·자립 의지 강화 교육 정읍시, 읍들어 3차례 실시

정읍시가 최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재활·자립 의지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정읍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과 4월, 7월 3차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교육은 통장가입자들의 재활·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채관리와 신용관리를 주제로 펼쳐졌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병행했다.



지난 1일 신중양시장에 청장년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가 개장해 영입에 들어갔다. <전주시 제공>

전주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 입맛 당기네 신중양시장 인근 포차 15대 운영 다양한 먹거리 판매

전주시는 신중양시장 상인회와 함께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를 시장 통로에 조성, 개장했다.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는 과거 신중양시장 인근에 밀집돼 있던 포장마차 존을 되살린 것이다. 전통시장과 인근 옛 도심을 활성화하려

는 취지다.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포차 15대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청장년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포장마차 먹거리부터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뽕잎 김밥, 스테이크 등 간

편 식품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또 내년 1월까지 물물교환 벼룩시장 개념의 '도깨비 시장'이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고 어린이 시장 체험 행사 등도 곁들여진다. 반봉현 전주 신중양시장 상인회장은 "직장인과 서민들의 소통, 화합의 장소로 사랑받았던 포장마차 존을 다시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여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신청사 기본계획수립 '시민의견' 듣는다

친화적 청사 건립 위한 시민토론회·시민소통마당 개최
익산시는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5일 모현도서관에서 진행했다. 설명회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최종계획안이 도출되기에 앞서 다양한 시민의견

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자리에서는 신청사 건립 기본방향과 규모, 사업비 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 친화적 청사건립을 위해 시민토론회, 시민소통마당 등을 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 지난 7-8월에는 주민편의시설 종류와 주차장에 대한 적정 규모와 관련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내부행정망을 통한 직원 설문조사도 2차례 진행했다. 시는 설명회 이후 신청사 기본계획 최종

안이 도출되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노후화되고 협소한 청사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청사건립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강진군보건소,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호응

강진군보건소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계획하고 있는 결혼 3년 이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강진군 소재 검진기관(산부인과 등)에서 검진하고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첨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한도액(남성 9만원·여성 17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신혼부부 건강검진은 부부의 건강은

물론 임신부 태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일 강진군 보건소장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꿈꾸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는 누구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건강검진을 받드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강진군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출산전환적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신안 압해~암태도 '천사대교' 내년 2월초 임시 개통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가 내년 2월 초에나 임시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방재시설 설치작업이 늦어져 2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천사대교는 총연장 7.22km의 3주탑 현수교와 연장 1004m의 주탑 사장교 형식으로 국내 4번째 규모의 장대 해상교량이다. CCTV, 안개 통제시설, 차 사고 시대피소, 구간 과속 단속기 등 방재시설 설치가 늦어지면서 개통 시기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천사대교는 방재시설을 갖추면 내년 2

월 1월부터 7월까지 임시 개통한 뒤 내년 3월 말 또는 4월 초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천사대교 건설로 신안 중부권 6개 섬에 육상교통망이 확충돼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도 개선돼 주민 소득향상과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목포항과 압해 송공항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압해 남강항과 안좌 북호항에 전진 배치할 수 있어 비금·도초·흑산·하의·신의·장산 등의 섬 지역 뱃길도 1시간 가량 단축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군산지역 노후 공동주택 24곳 '누수·균열'

시, 299개 단지 안전점검 결과 동절기 사고 대비 보수조치해야

군산시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점검한 결과, 24개 단지가 누수 및 일부 균열 등 보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산시는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5일부터 관내 2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134개 단지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160개 단지 ▲집중관리대상 노후주택 5개소를 대상으로 구조적 유지관리 상태(건축물의 균열 등)와 부대시설(담장, 용벽 등)의 안전 상태를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누수 및 일부 균열 등 보수조치가 필요한 총 24개 단지 가운데 의무관

리 대상은 12개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또 비의무관리 대상인 12개 단지는 대부분이 담장의 전도 또는 붕괴 위험이 있어 임시 안전 조치와 더불어 2019년도에 추진할 담장 철거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사고에 노출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2019년도에는 노후도가 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를 대상으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옥상방수, 외벽 균열 보수·보강 등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